

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6.2.26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금리인하 신청이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항목을 소비자에게 제공
- 2.26일 기준 총 70개社(마이데이터 13개社, 금융회사 57개社) 참여 → 전산 개발 후 최종 114개社(마이데이터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참여 예정
 -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5만명으로, 금융소비자 호응도 高
-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며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25.12.17일).

* 신용등급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 중

1. 그간 문제점과 추진 경과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반기 1회 이상)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반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뭔가요? (네이버카페 '채무 길잡이')

상황이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수 있는거 같은데, 저도 그럴 수 있을지 알아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건 별 차이가 없는데, 6개월전에 이직하면서 연봉이 좀 올랐어요. 신용점수도 올랐나 해서 다시 봤는데, 신용점수는 뭐 별반 다름없어요. 연봉이 ...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

- 신청건수(만건) : ('22) 254.4 → ('23) 396.1 → ('24) 389.5 → ('25.上) 163.8
- 수용률(%) : ('22) 31.2 → ('23) 35.7 → ('24) 33.7 → ('25.上) 28.8
- 이자감면액(억원) : ('22) 1,905 → ('23) 3,203 → ('24) 2,236 → ('25.上) 767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의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와 금리인하 요구권 이거 되는거맞나요? (네이버카페 '신용카드 박물관')

작년 12월 대출받고 현재 작년12 월 보다 연봉 천만원가까이 늘고, 신용점수도 더 올랐는데 금리인하 요구권 하니까 거절당하네요 ㅋㅋ 되는건맞는건가 싶네요

금리인하요구권 성공하신분 있나요? (네이버카페 '포항 부동산스터디')

금리인하요구권제도에 관한 안내문자가 많이옵니다. 소득상승등의 사유로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엄청난 소득상승이 아닌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잘 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하여입니다.
음, 신용등급 상향, 부채감소의 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 가능합니다.
!방상태의 개선이 있어야 당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위되지 않습니다.

RE 신청해서 상담했더니 안되어요 괜히 시간낭비 허탈

RE 아파트 중도금무이자대출 중에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2.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社*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p.6 <붙임> 참조)하여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여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최대 월 1회)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 총 57개 금융회사(은행 13개사(5대은행 포함), 상호금융 2개사, 보험 17개사, 카드 6개사, 캐피탈 19개사)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 자동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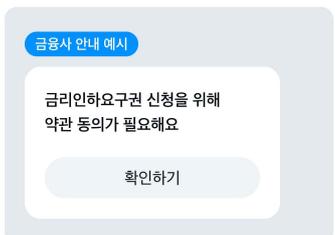
** 최초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대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동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함에 유의(사업자간 과당경쟁 방지)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하여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 금리인하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안내항목(예시)

- ① (신상정보) 연소득 증가, 취업 또는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 ② (거래정보) 해당 은행 상품가입 등 수신거래실적 확대,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 확대
- ③ (대출 거래정보) 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 고금리 대출 축소
- ④ (카드 거래정보)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 ⑤ (연체정보) 연체 정리 후 추가 연체없이 장기간 정상적인 신용활동 지속

<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신청 예시 >

① 초기 화면	② 서비스 안내	③ 마이데이터 연결
<p>남은 대출금 328,960,120원</p> <p>이번 달 갚을 돈 1,021,200원</p> <p>원금 311,200원 이자 710,000원</p> <p>📌 줄일 수 있는 이자 121,200원 ></p> <p>📌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신청하기 ></p> <p>📌 우리WON직장인주택담보대출 127,900,120원 12일 상환 ></p> <p>📌 سهل借款 직장인대출 163,300,240원 6일 상환 ></p>	<p>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 이자 줄이세요</p> <p>매년 132만명이 평균 17만원 줄였어요</p>  <p>신용점수 최대로 올려서 신청하니까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p> <p>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이자 줄일 때까지 알아서 신청해줘요</p> <p>10초만에 신청하기</p> <p>* 서비스 이용약관, 위임장, 개인 신용정보활용 동의 포함</p>	<p>금리인하 대출 찾기</p> <p>금리인하를 위해 한 번에 대출을 불러올게요</p>  <p>① 현재 이용 중인 것 같은 금융사도 함께 찾아 봤어요</p> <p>불러오기</p> <p>금융사 직접 선택</p> <p>* 본인인증 절차 포함</p>
<p>👉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p>	<p>👉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 가입</p>	<p>👉 보유 대출정보 최신화</p>
④ 대상 대출 선택	⑤ 신청 완료	⑥ 신청·결과 이력 확인
<p>대출 찾기 완료! 이대로 금리 낮춰볼게요</p> <p>체크한 대출은 자동신청이 돼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 1억 5,000만원 ✓ 상품명 1억 5,000만원 ✓ 상품명 6,000만원 ✓ 상품명 1억 5,000만원 신청 불가 대출 <p>다음</p>	<p>금융사에 신청 완료했어요!</p> <p>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동의 안내가 갈 수 있어요</p>  <p>확인</p>	<p>신청 내역 ?</p> <p>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2월 2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WON직장인주택담보대출우... 자동 신청 심사 중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역구매방식) 자동 신청 심사 중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역구매방식) 심사완료 성공 > <p>2월 2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WON직장인주택담보대출 심사완료 실패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역구매방식) 자동 신청 심사 중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역구매방식) 심사완료 실패 >
<p>👉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적용할 대상 대출 상품 선택</p>	<p>👉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가입 완료 및 서비스 개시</p>	<p>👉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결과 이력을 관리</p>

3. 서비스 참여기관 및 사전신청 결과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2.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업권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사와 금융회사 39개사가 추가로 참여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114개사(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가 2026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모두 개시할 예정이다(기관별 오픈 일정 ↗ 붙임).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에서 참여기관 상시 확인 가능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당일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별 서비스 사전신청을 접수하였다('26.2.4일 ~2.25일). '26.2.24일 17시 기준 총 128.5만명의 소비자가 사전등록을 완료하는 등 서비스 개시 이전부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데이터 가입자수, 대출보유가구 비율 및 수용률 20% 상승 등을 감안하여 추정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박성빈	(02-2100-298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나운	(02-2100-2982)
		담당자	사무관	김예빈	(02-2100-2620)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지행호	(02-3145-7135)
<공동>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곽기열	(02-3705-2622)
		담당자	팀 장	이병호	(02-3705-5764)

붙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기관별 오픈 일정

오픈 일정 (기관 수)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
'26.2.26일 (70개사)	<p>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p> <p>금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13개사</p>	<p>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p> <p>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p> <p>ABL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신한라이프, KDB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p> <p>비씨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p> <p>롯데오토리스,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에이캐피탈, 오릭스캐피탈, 오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케이카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국캐피탈, 현대커머셜, BMW파이낸셜서비스, HB캐피탈, IBK캐피탈, MG캐피탈</p>
~'26.3.31일 (12개사)	현대카드, 웰컴저축은행	<p>농협중앙회</p> <p>흥국화재, 농협생명, KB손해보험</p> <p>우리카드, 신한카드</p> <p>제이비우리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NH농협캐피탈, 폭스마겐파이낸셜</p>
~'26.6.30일 (32개사)	하나은행, 키움증권, KB국민카드	<p>아이엠뱅크, 제주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p> <p>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BNK저축은행, DB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OSB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p> <p>삼성생명</p> <p>미래에셋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캐피탈, KG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이슨캐피탈, BNK캐피탈, DB캐피탈, KB캐피탈</p>

* 기관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